

研究論文

『大覺國師文集』의 편찬과 그 정치사회적 배경

박 용 진*

I. 머리말	IV. 맺음말
II. 『大覺國師文集』의 편찬과 내용	<참고문헌>
III. 『大覺國師文集』 편찬의 정치사회적 배경	<국문요약>

I. 머리말

大覺國師 義天(1055~1101)의 사상과 활동은 고려 중기의 정치·사회·사상적 동향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으며, 고려 초부터 계속된 教宗과 禪宗의 대립과 불교계의 분열을 극복하려는 시도와 관련이 있다. 고려중기 華嚴·天台思想의 중심에 의천이 있었고, 華嚴宗을 근간으로 하여 天台宗을 개창하였다. 이러한 의천의 활동과 사상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저술 분석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그간 의천의 활동과 불교사상사적 중요성 때문에 그의 편찬서인 『新編諸宗教藏總錄』, 『圓宗文類』 및 『釋苑詞林』 등이 검토되었지만, 『大覺國師文集』의 구체적 분석은 다소 미흡하였다.¹⁾ 『大覺國師文集』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문집의 形態 書誌的 검토와 구성 등에 대해 개별적인 논고에서 간략히 언급된 정도이다.²⁾ 따라서

*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연구원, 고려시대사 전공(pyj63509@hanmail.net).

1) 최근의 의천 관련 연구 현황은 다음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이병욱(편), 『한국의 사상가 10인: 의천』(예문서원, 2002); 김상현, 「대각국사 의천 관계 참고문헌」, 『天台學研究』, 제4집(2003), 240~249쪽; 朴鎔辰, 「大覺國師 義天 研究」, 국민대박사학위논문(2004).

문집의 개별 작품에 대한 구체적 연기를 확정하고, 문집 편찬의 정치사회적 배경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본고는 『大覺國師文集』의 출간과 문집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작품연기를 확정하려 한다.³⁾ 또한 문집에는 大覺國師碑文이 수록되어 있는바, 문집의 편찬 배경과 관련하여 대각국사비의 建立을 둘러싼 고려중기 정치사회적 추이나 불교계의 동향을 주목하고자 한다.⁴⁾ 이러한 문집 관련 분석이 고려중기 불교사의 사상적 추이나 불교계 동향 등을 계기적으로 이해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I. 『大覺國師文集』의 편찬과 내용

1. 文集의 편찬

『大覺國師文集』은 모두 20권이며 그 編次는 序·辭·表·狀·論·書·疏文·祭文·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大覺國師外集』은 宋과 遼나라 僧俗으로부터 받은 書翰을 모아 놓은 書와 記, 詩, 碑銘 등 13卷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大覺國師文集』의 편찬과정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 우선 의천의 화엄종 문도에 의해 편찬된 문집의 관련 기록을 검토하여 편찬주체 등 그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
- 2) 대각국사문집의 해제는 다음이 참고 된다. 趙明基, 『高麗 大覺國師와 天台思想』(東國文化社, 1965); 李英茂, 『大覺國師文集』(建國大學校出版部, 1974); 崔柄憲, 『國譯大覺國師文集』(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9); 崔柄憲, 『大覺國師文集 虛應堂集 懶庵雜著』(東國譯經院, 2001). 한편 『大覺國師文集』의 작품 연기에 대해서는 陳景富가 <金剛>, 151호~162호(1997.8~1998.7)에 발표한 「大覺國師文集作品系年」이 참고된다.
 - 3) 이하 본고에서는 “문집”으로 약칭한다. 문집과 외집의 구분이 필요할 때에는 따로 쓰기로 한다. 문집의 판본에 대해서는 河村道器, 「大覺國師集の異板について」, 『靑丘學叢』, 四號(1931)이 있고, 尹炯斗, 「大覺國師文集考」, 『古書研究』, 제7호(韓國古書研究會, 1990)에서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언급하였다.
 - 4) 1937년 해인사 장경 인출시 결장, 결자, 마멸된 부분을 비교 보완한 최범술의 소장본을 저본으로 건국대학교에서 1974년 영인본을 출간하였다(『大覺國師文集解題』, 建國大學校出版部, 1974). 1989년에는 韓國精神文化研究院에서 위 건국대학교본을 대본으로 삼아 완역하여 번역문과 함께 영인본을 수록하였다. 또한 1994년에는 동국대역경원에서 해인사 寺藏刊本을 底本으로 하고 건국대출판부분을 臺本으로 飜刻한 『韓國佛教全書』가 현행하고 있다. 본고는 3본을 비교 검토하였다.

- ① 문인이 (국사가) 지은 시문을 모았다. 殘編과 斷藁로 남아있는 것이 얼마 없어 뽑아내어 편차하니 20권이 되었다. 이들은 모두 가볍게 쓴 것이고 후세에 전하려 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생전에도 그 글을 써서 새긴 것이 있으면 그 판을 거두어 태웠다.⁵⁾
- ② 西湖僧 惠素는 내외 典籍에 해박하였으며 詩文에 매우 재주가 있었고 필적도 현묘하였다. …항상 국사가 계신 곳을 따라 문장을 토론하였다. 국사 사후 <行錄10권>을 지었으며, 金侍中이 그 내용을 撫取하여 碑의 내용을 삼았다.⁶⁾

『大覺國師文集』은 위의 사료 ①에 따르면 의천의 문인이 詩文의 잔편 단고를 모아 가려 뽑아 20권으로 만든 것이다. 이는 모두 가볍게 쓴 것이고 후세에 전하려 한 것이 아니었으며, 의천 생전에도 그 글을 써서 새긴 것이 있으면 판을 거두어 태워버렸다. 의천 생전에 그의 글이 雕板되었지만 그것이 문집이었던지는 분명치 않다. 현전 문집의 글도 모두 가볍게 쓴 것이고 후세에 전하려 한 것이 아니었던 점으로 미루어 생전에 문집의 출간은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집의 편찬을 주관한 것은 문인이라고 하였지만, 구체적인 편찬주체를 알려주는 내용은 잘 찾아지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문집의 書者인 慧觀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행 문집은 法性寺 住持 慧觀에 의하여 쓰여 文集과 外集으로 갖추어 간행되었다. 이것이 現行本の 바탕이 되었음은 文集 卷8, 12, 16과 外集 卷4, 9의 末尾에 「法性寺住持賜紫沙門巨慧觀書」라 기재되어 있는 데서 알 수 있다.⁷⁾ 또한 문집의 권4, 20은 마지막 부분이 缺張되어 있어 분명치 않지만 <慧觀書>가 기재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⁸⁾

문집의 書者인 法性寺 住持 慧觀은 생몰이 정확치 않으며 그가 주지한 법성사

- 5) 金富軾, 『開城靈通寺大覺國師碑』,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高麗篇 3』(伽山佛教文化研究院, 1996), 117쪽. “門人集所著詩文 殘篇斷藁 存者無幾 紬次爲二十卷 此皆卒爾落筆 非將以貽後也 故於生前有以其文寫而刻之者 取其板焚之”
- 6) 李仁老, 『破閑集』卷上, “西湖僧惠素 該內外典 尤工於詩 筆跡亦妙…常隨國師所在 討論文章 國師歿 撰行錄十卷 金侍中撫取之以爲碑.”
- 7) 「法性寺住持賜紫沙門巨慧觀書」, 大覺國師文集 卷8, 12, 16과 外集 卷4, 9의 末尾에 기재되어 있다. 조명기는 4卷 1冊 80餘紙로 칠책된 것이 六冊 一秩로 간행된 것으로 보았다. 趙明基, 『高麗 大覺國師와 天台思想』(東國文化社, 1964), 142쪽.
- 8) 외집의 경우 권9 말미에 있으므로 나머지 부분에 기재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서문이나 발문이 존재하지 않아 그 내력을 살펴볼 수 없는 점이 아쉽다.

또한 잘 알 수가 없다.⁹⁾ 다만 영통사 비문에 의천의 문인으로 중대사 승계의 화엄 중 승려 慧觀이 기록되어 있어 동일 인물로 추정된다. 慧觀은 인종 3년(1125) 이후에 작성된 영통사비문에 의천의 문도로 기재되어 있으며, 인종 7년(1129) 가야산 신흥사에 주지하였다. 현재 해인사 사간판고에 보존되어 있는 판목은 慧觀이 쓴 것을 판각한 것으로 판단된다.¹⁰⁾

慧觀이 문집을 직접 편찬하였는지 아니면 書만 하였는지는 분명치 않다. 문인으로서 편찬자들과 함께 종류별로 분류하고 板下本을 淨書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한 <賜紫沙門 臣>이라는 용어는 간단히 개인 문집의 차원을 넘어선 왕명에 의한 찬집을 시사한다. 즉 慧觀을 비롯한 문인들이 行錄을 갖추어 상주하고 왕명을 받아 간행하였을 법하다.

의천의 문집편찬과 관련하여 <大覺國師實錄> 또는 <行錄> 10권이 전해졌다면 분명하겠으나 이들 역시 전해지지 않는다. 위의 사료 ②에서 보듯이 김부식은 惠素의 『行錄』 10권의 내용을 발췌하여 靈通寺碑文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문집의 편찬과 관련한 내용 역시 <行錄> 10권에는 있었겠지만 전하지 않아 알 수 없다. 또한 一然은 『三國遺事』의 勝詮髑髏條에서 大覺國師實錄이 있었던 사실을 전하고 있다.¹¹⁾ 一然이 『三國遺事』를 편찬한 13세기 후반까지는 實錄이 존재하였던 것이다. 다만 이 實錄이 김부식이 본 20권 문집과 의천의 문도인 惠素의 行錄 10권의 내용과 어떠한 상관성이 있는지 분명치 않지만 현행 慧觀이 쓴 내, 외집의 내용이 많이 포함되었을 법하다.

김부식은 영통사비문에서 의천의 남아있는 시문을 모아 편찬한 문집은 20권이었음을 전하고 있다.¹²⁾ 金富軾이 보았다는 文集 20卷은 그 정확한 내용을 알 수

9) 윤용진, 「法水寺址의 高麗懸板」, 『韓國文化의 諸問題』(시사영어사, 1982), 52~57쪽. 法水寺址의 慧觀記 高麗懸板에 따르면 1129년 가야산 신흥사 주지를 거쳐 법성사 주지가 되어 대각국사문집을 편찬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10) 『대각국사문집』, 『대각국사외집』은 1914년 關野貞이 해인사에서 版木을 발견하여 학계에 소개하였다. 內藤雋輔, 「高麗の大覺國師に關する研究」, 『支那學』, 3-9・10(1924); 京成大東洋史研究會, 『朝鮮史研究』(中國印刷株式會社, 1961), 1쪽.

11) 『三國遺事』義解-勝詮髑髏條. “其他事迹, 具載碑文, 如大覺國師實錄中.” 국사의 高弟인 惠素의 『國師實錄』을 읽고 김부식이 비문을 지었다. 실록에 대하여는 李仁老의 『破閑集』, 『三國遺事』의 勝詮髑髏條에 대각국사실록이 있었던 사실을 전한다. 일연이 『三國遺事』를 편찬한 당시까지는 존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없으나, 澄儼이 靈通寺碑의 건립을 발의한 1125년 이후 20권 문집이 편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현행 외집에 실려 있는 宋·遼의 인물의 서간문이 20권 문집에 편입되어 있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이로 보건대 김부식이 영통사비문에서 언급한 20권본 문집의 존재를 상정할 수 있다.

또한 현행의 慧觀이 쓴 문집과 외집을 들 수 있다. 이 문집에는 仁宗 연간에 金富軾이 撰文한 <靈通寺大覺國師碑文>과 林存이 찬문한 <僊鳳寺大覺國師碑文>이 外集의 마지막인 卷12와 卷13에 실려 있는 것으로 미루어, 慧觀의 손을 거친 이 현행 文集이 체제를 갖춘 것은 仁宗 16年(1138) 전후의 일로 볼 수 있다.¹³⁾

現行本 文集은 내집 20권과 외집 13권으로 체제를 갖춘 판본이 있으며, 한편 異板이 있어 23권의 문집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본 문집의 마지막 磨滅이 심한 3紙는 각각 그 版心이 『大覺國師文集』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現行本 外集과 비교하여 보면 차례로 卷11 제1紙 目次, 卷4 제4紙 希仲書, 卷7 제2紙 從諫書와 같은 부분이다. 특히 이들 3紙 가운데 제2紙에는 『大覺國師文集 卷第二十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외집의 卷第四 希仲의 서간문과 같다.¹⁴⁾ 이로 보아 文集과 外集을 따로 나누지 않고 23卷 이상으로 編次하여 한 책으로 엮은 『大覺國師文集』 異板이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磨滅된 3紙의 版木이 남아 慧觀書의 現行本인 文集 끝에 混入된 것으로 또 다른 판본의 존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⁵⁾ 이로보아 慧觀이 쓴 문집과 외집의 합집본, 慧觀이 쓴 문집, 외집으로 구분된 별책본 등 2종의 板本을 추가할 수 있다.¹⁶⁾ 앞서 김부식이 영통사비문에서 언급한 20권본 문집을 포함하면 모두 3종의 판본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2) 河村道器 등 기존의 견해는 4종의 異板과 현재 2종의 板本을 주장하였다. 한편 ‘板’의 해석을 문집 板本으로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천 당시 조판 후 소각판이 있었다는 견해에 이의를 제기하였다(박용진, 『大覺國師文集의 編纂과 그 의미』, 한국중앙사학회 월례발표회, 2006.11, 토론자 하해정). 본고에서도 ‘板’의 해석을 문집 板本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아 의천 당시 판본은 없는 것으로 본다.

13) 河村道器 등 기존의 연구는 圓明國師 澄儼이 대각국사비의 건립을 발의한 인종3년(1125) 이후로 본다.

14) 『希仲書 第四』(『대각국사외집』(4); 『한국불교전서』(4), 573쪽).

15) 河村道器, 『大覺國師集의 異版について』, 『靑丘學叢』, 4(1931), 147~148쪽. 4版이 있었는데, ① 의천 당시 조판 후 소각판, ② 김부식이 영통사비문에 언급한 20권본, ③ 慧觀이 쓴 문집, 외집 ④ 慧觀이 쓴 문집, 외집 합집으로 보았다.

16) 河村道器, 위의 논문, 147~148쪽.

2. 『대각국사문집』의 내용

현행 문집은 『대각국사문집』 20권과 『대각국사외집』 13권으로 구성된 판본이 비교적 완성된 체제를 갖추고 있다.¹⁷⁾ 문집은 序·辭·表·狀·論·書·疏文·祭文·詩로 구성되어 있고, 외집은 宋과 遼나라 僧俗들로부터 받은 書翰들을 모아 놓은 書 외에 記, 詩, 碑銘 등 13卷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문집의 편찬자인 의천의 문도는 외집에 의천의 생애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2개의 비문을 추가 補入하여 편찬하였다.¹⁸⁾

내집은 문집으로서 갖추어야 할 항목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 형식상 완전한 체제를 갖추고 있다. 또한 편찬자는 내집에는 의천의 저작을 수록하였고, 외집에는 의천의 저작이 아닌 외국 승려 등의 書文과 詩文을 수록하였다. 다만 외국의 승려와의 교류서신 일부는 의천과의 직접적인 관련을 제시하기 어려운 것도 있다.¹⁹⁾ 의천의 碑는 화엄종과 천태종 문도에 의해 인종 대에 각각 建立되었으며, 의천의 문도는 그 碑文을 외집에 수록하여 현행 문집의 체제를 완성한 것이다. 이는 의천의 불법 교류 업적을 분명히 하는 한편 국제적으로 존송된 인물이었음을 제시한 셈이다.

『大覺國師文集』의 卷次에 따라 문집의 내용과 年紀를 살펴보면, 序文은 경전, 목록, 文類 등의 편찬 시말을 기록한 것으로서 모두 5수였으나 「八師經後序」는 全落으로 그 내용을 알 수 없다. 권1에 실려 있는 서문은 「新集圓宗文類序」, 「新編諸宗教藏總錄序」, 「刊定成唯識論單科序」, 「八師經後序」, 「消災經直釋詳定記」로 모두 5수이다. 「唯識論單科序」는 권1의 5~6장이 결장됨에 따라 중반 부분이 누락되었다. 「八師經後序」는 9~14장이 결장됨에 따라 그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다. 권2

17) 본고에서는 慧觀이 淨書한 문집 20권과 외집 13권의 현행본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18) 趙明基, 『高麗 大覺國師와 天台思想』(東國文化社, 1964), 145쪽.

19) 천태종의 仁岳(992~1064), 선종의 契嵩(1007~1072) 등은 의천 보다 앞선 시기의 인물이었다. 仁岳의 몰년에 대해서는 陳垣, 『釋氏疑年錄』(中華書局, 1964), 217쪽에는 建中錄에 의거 1077년으로 하였지만, 기존의 연구는 『釋門正統』 권5, 『新纂續藏經』 75; 『佛祖統紀』 권21, 『대정장』 49의 “治平元年春 謂門人曰 我翌日午刻當行 果留偈安坐而亡 時三月二十五日也”의 기록에 의거, 治平元年 즉 1064년을 沒年으로 본다. 仁岳과 관련하여 동명이인으로 추정되는바, 추가 검토가 요구된다. 논문집사시 심사자의 교시에 따라 문집의 作品年度 등을 재검토하는 등 일부를 수정 보완하였다. 지면을 통하여 감사를 드린다.

역시 1~8장이 결장되었고, 권2의 마지막 부분은 新譯華嚴經疏 序文의 마지막 부분 일 것으로 추정된다.²⁰⁾ 권1의 「圓宗文類序」는 정확한 편찬 시기를 알 수 없으나 1090년 전후로 추정된다.²¹⁾ 권2의 缺題文을 제외하면 대체로 시기별로 편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권2에는 『判定成唯識論單科序』보다 후대 편찬이 주로 배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분명치 않다.²²⁾

문집 권3의 「國淸寺開講辭」는²³⁾ 1097년 5월로 추정된다. <靈通寺碑文>에 따르면, 의천이 왕명으로 개경에 돌아와 국청사의 주지가 되었음을 전하고 있다. 이 시기 의천은 국청사를 낙성함과 동시에 주지로 임명되면서 天台教觀을 강하였다. 나머지 6수는 그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찾기 어렵다. 「孟蘭盆經講辭」와 「遺教經講」에 대하여는 年紀를 알 수 있는 단서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遺教經의 경우 ‘晉水 淨源의 강하에서 높은 법문을 얻어 들었다’²⁴⁾라는 내용으로 보아 의천이 귀국한 뒤인 1086년 6월 이후에나 있었을 법하다.

圓覺經 講經은 圓應國師 學一의 碑文에 따르면 무인년에 흥원사에서 圓覺經 법회가 개설되었는데, 學一을 부강으로 초청하였으나 그에 응하지 않았던 사실을 관련 근거로 들 수 있다.²⁵⁾ 1086년 의천이 有誠과 교류한 시에 따르면, 이미 고려에서 「圓覺經疏」가 유행하였던 점으로 미루어 「圓覺經講經辭」가 1099년에 지어진 것으로 단정키는 어렵다. 다만 「國淸寺開講辭」는 1097년, 圓覺經은 1099년에 강경한 것으로 본다면 유교경과 화엄경 十通品도 1099년 이후 의천이 말년에 저술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문집 권제5, 6, 7, 8은 모두 表文으로서 43수를 전하고 있다. 결장이 된 부분이

20) 韓國精神文化研究院, 『國譯 大覺國師文集』(1989), 14쪽.

21) 朴鎔辰, 「의천의 『圓宗文類』 編纂과 그 의의」, 『史學研究』, 제82호(韓國史學會, 2006).

22) 권1의 단과서가 1095년으로 추정되며, 권2의 年紀는 1094년 2월 20일로 서문 말미에 기재되어 있어 권1에서 권2까지 연속하여 시기별로 편찬하였다. 문집과 외집의 전반적인 편찬 방식은 대부분 文種에 따라 시간 순으로 배정하였다.

23) 漢文 文體의 하나로서 疏 및 賦와 비슷한데 흔히 韻語를 씀. 騷의 변화. 諸橋徹次, 『大漢和辭典』, 권10(大修館書店, 1985), 1087쪽.

24) 義天, 「講遺教經發辭」(『대각국사문집』(3); 『한국불교전서』(4), 532쪽), “某重法輕身 求師問道 幸於講下 獲聽圓音 今所講者 則我晉水 新集節要是也.”

25) 尹彥頤, 「淸道雲門寺 圓應國師碑」(『조선금석총람』권상, 349쪽), “我肅王四年 宋紹聖五年 戊寅 大覺於弘圓寺 還圓覺會 以師爲副講師 辭曰 禪講交濫 不敢當之.”

있어 이보다 더 많은 내용이 있었겠지만 정확치는 않다. 의천이 입송 구법 전후의 기록이기 때문에 쉽게 편년이 가능하다. 「請入大宋求法表」에 따르면 ‘작년 8월에 (1084년 8월) 송나라 兩浙華嚴閣梨 淨源법사가 보낸 한 통의 글을 받아 보았다’라는²⁶⁾ 내용은 의천이 고려에서 송나라 淨源의 초청 편지를 받은 것이며, 이 表文을 쓴 때는 의천이 曇眞 등 승속 11명과 함께 정주에서 배에 올라 떠난 1085년 4월이다.²⁷⁾ 권8의 表文 5수는 모두 1085~1086년 사이에 지어진 것이다. 의천은 1086년 6월 귀국 하여 「결죄표」를 올리고 또한 「謝放罪表」를 지었다.

기타 정확한 年紀를 알 수 없는 「上大遼皇帝曉公章疏表」²⁸⁾와 의천이 개경으로 돌아온 이후인 1095년 11월 이후로 추정되는 「上唯識論單科表」, 숙종이 즉위함에 따른 「賀肅王新即位表」는 1095년 10월 15일에 작성되었으며, 숙종이 즉위하여 의천을 초치하였으나 이에 대한 사양의 입장을 표하는 表文이 1095년 10월 22일과 11월 3일 이후에 각각 지어졌다.²⁹⁾

狀은 문집 권9에 수록되어 있으며, 대부분 입송구법시인 1085~1086년 어간에 작성되어진 것이다. 3장에서 6장이 缺張되어 제목만 전하는 11수와 왕의 교서를 사양하는 편지³⁰⁾외에는 모두 입송구법시 이동 경로의 지방관들에게 전하는 내용이다.³¹⁾ 문집 권10의 狀文은 제1장에서 4장, 제9장, 제10장이 결장되어 있으나 「上淨源法師書」 四首는 남아 있다.³²⁾ 권11에는 1086년과 1088년 사이에 작성된

26) 의천, 「請入大宋求法表」(『대각국사문집』(5); 『한국불교전서』(4), 534쪽), “於去年八月 得大宋兩浙華嚴閣梨 淨源法師書一道”

27) 金相永, 「義天의 天台宗 開創과 관련한 몇 가지 問題」, 『중앙승가대학교교수논문집』, 8(중앙승가대, 1999), 281쪽; 鄭修芽, 「高麗中期 改革政治와 北宋新法의 受容」, 서강대박사학위논문(1999), 55쪽.

28) 의천은 1090년에 『新編諸宗教藏總錄』 3권을 편찬하였는데 남유하여 잔간을 찾은 수집서가 전후 합하여 4천여 권이었다. 따라서 요나라에 장소를 보냄과 동시에 수집 요청도 함께 하였을 것이다. 1086년 이후 1091년의 어느 시점이라고 보여 진다.

29) 「辭赴闕表二首」(『대각국사문집』(8); 『한국불교전서』(4), 542쪽). “臣沙門某言 十月二十二日 樞密院左承宣吏部侍郎金德均等 至奉傳教書 一道 伏蒙王慈 令臣赴闕者…臣沙門某言 今月初三日 樞密院遞到教書一道 賜臣促令赴闕者.” 숙종이 즉위 후 10월22일에 이어 11월3일에도 중사를 보내 입궐을 재촉하였음을 알 수 있다.

30) 「□□王教書狀」(『대각국사문집』(9); 『한국불교전서』(4), 542쪽).

31) 따라서 입송구법시 汴京으로 이동하는 주요 지역 지방장관들에게 전하는 편지는 모두 1085~1086년에 지어진 것이다.

32) 1086~1088년 淨源 입적 이전의 글이다. 첫 번째 글에는 ‘천리의 돌아가는 배에 의탁하여 한 장

의천과 淨源간의 교류 서장을 포함하여 모두 1085년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다.³³⁾

書는 문집의 권11에 4수, 권13에 2수이며 나머지는 缺張으로 인하여 알 수가 없다.³⁴⁾ 이는 1089년, 1090년에 지어진 것이다. 書文은 문집 4수, 외집 74수 모두 78수가 전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편년 역시 書文의 내용으로 추측 가능하며 대체로 송나라 승려들의 서간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編者는 이들을 연대순으로 편찬하였으리라 여겨진다. 문집의 편찬자는 의천이 입적 후 관련 사실을 잘 알면서 年代順으로 集錄하였다.

권14는 疏文 12수로 구성되어 있으며,³⁵⁾ 권15 역시 疏文이 실려 있다. 1083년 10월 「大行大元靈駕疏」, 1084년 10월 「順王忌日禮懺疏」, 1084년 「蘭盆日燒臂發願疏」, 1091년 「代宣王諸宗教藏彫印疏」,³⁶⁾ 「般若道場疏」³⁷⁾ 등이 권15에 실려 있으

의 예의 편지를 올리면서'라는 문장에 의거 1086년 귀국의 길에 쓰인 글로 판단된다. 네 번째 글에는 '존자께서 선경 국왕의 홍서에 멀리서 위문해 주시고 또 항주 상부사 왕자원에서 특별히 명복을 빌기 위해 追薦의 齋를 올리신 뒤 이어 그 공덕을 비는 疏文을 부치시나'라고 한 글에 의거, 순종의 齋日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귀국 후의 글로 추정된다. 한편 제10권 1~4장은 결장되었는데, 그 마지막 부분은 송나라에서 작성한 것으로 1085년에 해당한다.

- 33) 1089 與大宋善聰法師狀 三首, 1089 與大宋淨因法師書 二首, 1089 答大宋元紹律師書, 1090 이후 與大宋行者顏顯書(顏顯書가 적어도 1090년에 쓰였다고 추정하는 근거는 본문 중에 '오즈음 임금님의 뜻을 받들어 여러 宗의 章疏를 수집하여 수천 권을 출판하던 중에 우선 먼저 부치나'라는 내용에 근거한다). 1090년에 新編諸宗教藏總錄을 편찬하였고, 교장도감에서 章疏를 간행하였다.
- 34) 「與內侍文冠書」(『대각국사문집』(13); 『한국불교전서』(4), 550쪽). “早歲幸蒙先君恩度 爲僧 賴以宿因 自十六 七歲已來 從事于西方聖人之教 二十載于茲矣 然釋氏之教 流通中國者 百不一二矣 今所傳三藏正文 僅六七千卷 其他古今賢哲注疏之家 一千年來 無代無之 此又不能悉數也 雖有拔萃之器 信乎終身不能究其業也 況中下之人乎 予固不敏 而知學之難 所以頃歲 重道輕生 問津中國者 志在於何 在乎效聖人之用心也.” 1086년 이후가 자연스럽다.
- 35) 「疏文」(『대각국사문집』(14); 『한국불교전서』(4), 551쪽). “大宋相國寺祝聖壽齋疏, 祝皇太后同前疏, 大宋法雲禪院祝聖壽齋疏, 大宋普照王寺本國王生晨齋疏, 大宋啓聖院本國文王忌晨齋疏, 請本講晋水法師講法界觀疏, 大宋天台塔下親參發願疏, 寄日本國諸法師求集教藏疏, 捨金塔納大宋慧因院疏, 追薦大宋淨源法師百日齋疏, 捨黃金奉塔疏, 代世子集教藏發願疏” 등이 수록되어 있다. 大宋相國寺祝聖壽齋疏에서 大宋天台塔下親參發願疏까지는 1085년에서 1086년 송나라에서 지은 것이다. 1086~1091년 寄日本國諸法師求集教藏疏 1089년 捨金塔納大宋慧因院疏, 追薦大宋淨源法師百日齋疏, 捨黃金奉塔疏, 1073년 代世子集教藏發願疏로 편년할 수 있다.
- 36) 『新編諸宗教藏總錄』이 1090년에 편집되었고, 仁睿太后가 1092년 9월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어머님의 수명이 더욱 길어지기를’ 기원하는 願文에 따르면 1091년과 1092년 9월 사이에 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 37) 陳景富는 『고려사』의 반야도량 설행 기사에 근거, 1073년으로 추정하였다. 陳景富, 「대각국사 문

나 구체적인 年紀를 추정할 단서는 잘 찾아지지 않는다.

문집 권16은 祭文 12수와 眞影讚文 1수, 學徒들에게 보이는 示文 5수로 구성되어 있다. 본권에서도 3장과 4장이 缺張됨에 따라 「祭景德國師文」 1수, 「祭順王文」, 「祭居頓寺智宗國師文」이 결장되었고, 7, 8장이 결장되어 「祭慧德王師文」이 빠져 있다. 또한 14장, 15장이 빠져 「示學徒文」 五首 가운데 1수가 결장되어 있다.³⁸⁾ 문집 권16은 祭文과 示文이 위주가 되어 있으나 年紀를 분명히 할 수 없다. 祭文의 특성상 주기적으로 祭를 행하는 것 때문에 사망한 그 해를 작성 시점으로 볼 수 없다. 祭文에서의 특기 사항은 법상종 승려들에 대한 祭文이 다수 보이는 점이다. 居頓寺 智宗, 磻川寺想祖師를 제외하면 金山寺寂法師, 慧德王師, 龍頭寺祐詳大師 등은 모두 법상종 승려로서 의천은 이들과 교류하며 불교계에서 활동한 것으로 판단된다.

문집에 수록된 의천의 시는 107수, 외집에 27수이며 『동문선』과 『보한집』에도 2수가 실려 있어 이를 모두 합하면 136수이다. 缺落되거나 마멸된 것을 합하면 더 많겠으나 판독 가능한 것이 그렇다.³⁹⁾ 문집의 詩를 詩體別로 보면 5언절구 16수, 7언절구 76수, 7언율시 11수, 6언시 1수로 구성되어 있다. 외집의 권10, 권11에는 외국의 승속으로부터 받은 27수가 실려 있으며, 偈, 頌, 7언절구, 7언율시, 5언당 율시, 고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집에 수록된 시의 내용은 불법에 관련된 시와, 자연과 서정을 담은 것으로 승려로서의 불법 중흥과 인간적 정서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⁴⁰⁾ 의천은 생전에 그의 글을 실은 판을 거두어 태웠는데, 그 가운데 다수의 시가 포함되었을 것이다.

집 작품 계년<1>, 《월간금강》, 1997년 8월호, 66쪽.

38) 1085 祭文王文, 1066 祭景德國師文 二首(陳景富는 1076년으로 보았지만 「景德國師墓誌」, 『韓國金石全文』中世上, 499쪽을 확인하지 못한 듯 하다), 1083 祭順王文, 缺張 祭居頓寺智宗國師文, 미상 祭磻川寺想祖師文, 1095 祭宣王文(해인사에 은퇴해 있는 신 의천이라는 문구에 의거), 1091.11 祭芬皇寺曉聖文, 1091 祭金山寺寂法師文, 1096 祭慧德王師文, 미상 祭弘濟僧統文, 1096 祭龍頭寺祐詳大師文, 미상 澄遠僧統眞讚, 1086이후 示學徒文 五首.

39) 의천이 지은 詩의 대부분은 현실 인식이나 시대 상황을 그렸다기보다는 불교적 담론, 승려 등과 교류한 시로 분류된다. 따라서 그의 시에서 현실 인식과 시대 상황을 추론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의천이 쓴 詩에 대한 연구는 다음이 참고 된다. 최한술, 「대각국사 의천의 시세계」, 계명대석사논문(1985); 이종찬, 「義天의 折衷의 文學觀」, 『韓國漢文學研究』(1980); 朴在鎭, 「의천의 불교시」, 『韓國禪詩研究: 무의자 혜심의 시세계』(국학자료원, 1998).

40) 박재근, 위의 책(1998), 40~41쪽.

이미 지적하였듯이 문집 권17부터 권20까지는 詩가 집록되었다. 우선 이들 시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年紀를 정할 수 없다. 대부분 승려들과의 교류시와 林泉에서의 性情을 읊은 詩文으로 시대상황이나 현실인식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일정한 편집 원칙에 따랐을 것으로 판단되나 저작 시기가 혼합되어 있는 점은 이를 구분하기 어렵게 한다. 문집 권17, 18, 19, 20에 수록된 詩文 가운데 비교적 年紀를 확정하기 쉬운 것은 권20에 실린 詩文으로 干支가 분명하며, 의천 末年의 작품들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⁴¹⁾

『대각국사외집』에는 詩文 27수, 書簡文 74수가 수록되어 있다. 외집의 권1에서 권8까지는 서간문 74수이며, 입송구법시 교류한 승려, 宋朝 관료의 書簡文이 대부분이며, 귀국 후의 對宋 교류 서문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의 年紀는 분명치 않지만 宋에서 교류한 서문 이외에는 대부분 1086년 이후의 것이다.⁴²⁾ 문집의 편찬자는 의천이 입적 후 관련 사실을 잘 알면서 年代順으로 輯錄하였다.

『대각국사외집』에서 詩文은 권10과 권11의 兩卷에 실려 있고, 대부분 입송구법시 송나라 고승 또는 관료들과 교류한 詩文이다. 따라서 이들 詩文의 年紀는 1085년에서 1086년 사이로 볼 수 있다. 또한 입송구법시 교류의 차원을 넘어 전법과 사자상승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일종의 전법시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고승들과의 교류시를 제외하면 의천을 안내한 송나라 관료 蘇軾, 楊傑의 시 3수와 遼 天慶寺 승려 智佶과의 교류 시문으로 모두 35수이며 缺落된 것을 제외하면 27수이다.

외집 권12, 권13에는 靈通寺, 僊鳳寺碑文이 실려 있다. <靈通寺碑文>은 1125년, <僊鳳寺碑文>은 1132년 건립 발의 이후 어느 시기에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41) 『詩』(『대각국사문집』(20); 『한국불교전서』(4), 564쪽). 詩文은 1094년부터 1101년까지 의천 후기의 저작들이다. 작성 추정 시기는 다음과 같다. 1094 敍懷, 1094 上獻王三首, 1094 海印寺退居四首, 불명 講金剛經, 불명 讀海東教迹, 送海座主, 宿天城寺, 示學徒寫眞, 贈天車金侍郎, 1095 赴闕次留題古寺二首, 불명 聞資善大師論議, 讀唐朝裴相公發菩提心文, 1099 呈副君殿下, 불명 見隴西大尉預和口再吟 竊聞扶餘公新創菩提房 和學院有作 奇廣化長老 端居有作 謝木防己枕子 1097 悼慧德王師, 불명 送悟禪師請老歸山, 和曹郎中韻述自意五首, 1100 庚辰六月四日國清寺講徹天台之後言志示徒妙玄, 1101 秋講隱子脾病屢作.

42) 『外集』, 권1 1085 大宋哲宗皇帝詔書 二首, 大宋誠法師答辭三首, 1086 大宋源法師答辭 권2 1084 大宋國 兩浙傳賢首祖教老僧淨源書白高麗國僧統法子, 1085.10 大宋沙門有誠書 二首, 1086.1 大宋沙門仁岳書, 1086~1088 大宋沙門淨源書 五首/권4 1086년 이후(추정)/권5 1088년 이후(추정)/권6 1088 大宋沙門善聰書 七首(淨源의 입적 사실 기록)/권7 1089 大宋沙門從諫書 四首 大宋沙門智生書 二首, 1097 大宋沙門法隣書 권8 1086년 이후(추정) 疏文.

의천의 문도들이 현행의 『大覺國師文集』에 비문을 補入하여 편성한 시기는 대각국 사비가 건립 완료되는 1138년 전후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대각국사외집』의 특징은 수록된 書信 및 詩文의 분석을 통하여 보다 분명히 할 수 있다. 外集 권13에는 다양한 종파의 승려와 교류한 詩文과 書文이 수록되어 있다. 의천과 서신을 교류한 인물은 승려 26명, 遼의 관료 1명 등 27명이었고, 詩文은 승려 19명, 송의 관료 2명 등 모두 21명이었다. 중복된 인물을 제외하면 모두 39명이다.⁴³⁾ 詩文은 書信 교류시 함께 보내거나 宋에서 만났을 때 직접 전한 것이었다. 『대각국사문집』의 권10과 권11에는 의천이 宋의 淨源, 善聰, 淨因, 元炤, 顏顯에게 보낸 서문이 수록되어 있다. 문집에 수록된 서문과 시문은 의천이 직접 지은 것이지만 외집은 외국의 승속으로부터 받은 것을 주로 수록하였다.

『大覺國師文集』은 내집 20권에 缺落이 120장, 외집 13권에 20장이며, 내집의 21, 22, 23권은 전권이 缺落되어 있다.⁴⁴⁾ 이 現行本の 高麗板木이 지금 海印寺 寺刊板庫에 보존돼 오고 있으나 진작부터 없어진 것이 적지 않아 現行本 文集에는 缺落이 많다. 예컨대 卷6은 총11紙 가운데 제3·4·5·6·7·8·9·10紙가 없으며, 또 卷12는 주전론의 내용인데 총 16紙 가운데 제1·2·3·4·11·12紙가 없다. 卷19만이 14紙를 제대로 갖추고 있을 뿐이다. 이렇듯 판본이 다양하게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장이나 缺落이 많다는 것은 후대에 많은 편집이 행해졌거나 의천의 사상이나 사적이 제대로 전승되지 못하였음을 시사한다.⁴⁵⁾

한편 종파별 缺落 내용을 비교하면, 화엄종 결락 12수, 법상종 4수, 천태종 관련 2수, 선종 관련 3수이다. 화엄종 관련 文類의 缺落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⁴⁶⁾ 또한 詩文의 결락 가운데에도 다수의 화엄종 사원 관련 詩題가 보인다.⁴⁷⁾ 실제 선

43) 崔柄憲, 「大覺國師 義天의 渡宋活動과 高麗 宋의 佛敎交流: 晋水淨源과 慧因寺와의 關係를 중심으로」, 『震檀學報』, 第71·72號(震檀學會, 1991), 365쪽.

44) 전체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은 20권 본이며, 23권이 있는 것은 異板으로 추정된다. 河村道器, 앞의 논문(1931), 147~148쪽.

45) 기존의 연구에서 이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金杜珍, 「의천의 圓頓사상과 그 불교사적 의미」, 『北岳史論』, 제10집(北岳史學會, 2003), 147쪽; 金杜珍, 『고려전기 교종과 선종의 교섭사상사연구』(일조각, 2006), 363쪽. 한편 문집에 천태종 관련 문장이 대부분 누락되었다는 것은 의천의 문도 가운데 화엄종 문도들이 의도적으로 천태 관련 기록을 누락시킨 것으로 보았다. 高喬亨, 「高麗佛敎의 經綸について」, 『朝鮮學報』, 第十輯(1956), 131쪽.

46) 朴鎔辰, 앞의 논문(2004).

중 관련 자료는 輯錄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의천이 선종에 대해 비판적이었고 선종 인물과의 교류도 잘 나타나지 않는 점과 무관치 않다.⁴⁸⁾ 『대각국사문집』의 저자인 의천이 화엄종 출신 승려였기 때문에 화엄 관련 내용이 많았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또한 의천의 문도들이 편찬한 20권 문집 역시 화엄종 문도의 입장에서 편찬하였기 때문에 다른 종파인天台나禪宗 관련 문류의 수록은 사실상 어려웠다.

III. 『大覺國師文集』 편찬의 정치사회적 배경

의천의 사상과 교학을 알 수 있는 『大覺國師文集』에는 <영통사비문>과 <선봉사비문>이 실려 있어, 인종대(1122~1146)에 현행 『大覺國師文集』의 체제가 갖추어져 편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각국사비가 건립되고 이를 보입한 문집이 편찬되는 시대적 배경과 인종대 불교계의 동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의천이 1101년에 사거한 이후 김부식과 임존에 의해 비문이 찬술된 <영통사비>와 <선봉사비>가 1138년경에 각각 건립되었다.⁴⁹⁾ 이렇듯 오랜 시간이 지난 인종대에 다시 大覺國師 의천에 대한 관심이 제고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이에 더하여 김부식과 임존이 비문을 撰文한 정치적 배경과 불교계와의 친연성 등은 무엇이었는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영통사비>, <선봉사비>의 비문에는 撰文시기와 건립시기를 알 수 있는데 다음의 자료를 살펴보기로 하자.

47) 문집 권제18 소수 詩題는 和題弘化寺 和題福興寺 和李翰林讚花嚴寺石壁經 芬皇寺禮曉聖像 大伯山鷲口寺 浮石寺禮想師影 興教寺禮神林祖師影 楞伽山淨藏蘭若 寶月山師子寺 和鷄林公聽花嚴經 贈機法師 등이다. 문집 권제20 所收 詩題는 留題實際蘭若 留題修定蘭若 등이다.

48) 朴鎔辰, 위의 논문(2004)을 참조. 한편 許興植은 의천의 문집에 송 禪僧과의 대화가 실려 있지 않은 것은 문집 파손이 이유일 수도 있으나 入宋時 탐탁치 못한 대우를 받았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 許興植, 「의천의 思想과 試鍊」, 『정신문화연구』, 제17권(1994), 345쪽.

49) 기존의 연구는 中書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에 주목하여 1133년경으로 보았다. 최연식, 「大覺國師碑의 建立過程에 대한 새로운 고찰」, 『한국사연구』, 제83호(1993), 39쪽, 박용진, 앞의 논문(2004). 비문찬술의 발의는 영통사비가 1125년, 선봉사비는 1131년이지만, 碑의 건립시 찬자의 관직을 보면 1138년과 1137년에 해당된다. 따라서 비문 찬술의 명 이후 13년과 6년이 경과한 셈이다. 결국 영통사비문의 찬술시기는 澄嚴이 건립 발의를 한 1125년 이후, 건립은 김부식의 관직에 의거 1138년 무렵으로 추정된다.

① 金紫光祿大夫 檢校守太尉守司徒 中書侍郎 同中書門下平章事 判尚書禮部事 修國史 上柱國 臣 金富軾 奉宣撰…상께서 위를 이으신지 4년인 을사년(1125) 가을 7월 경오일에 대각국사의 문인인 都僧統 澄儼 등이 국사의 행장을 갖추어 상계 아뢰기를 “국사께서 세상을 떠나신 지 오래도록 아직 그 비명을 짓지 못하여 그 덕업이 마멸되어 기록하지 못할까 걱정이 됩니다.”…신 부식에게 행장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비명을 지으라” 하심에 신이 사양하였으나 허락을 얻지 못하였다.⁵⁰⁾

② 上이 在位하신 지 10년만인 辛亥年(1131) 8월 7일에 臣 存에게 海東 天台 宗의 始祖 大覺國師의 碑銘을 지을 것을 命하셨다.…陰記 強圉荒落年(1137) 應鍾月(10월) 南崇山寺 天台始祖碑陰記⁵¹⁾

위의 자료에 따르면 <영통사비>는 인종 3년(1125) 7월 都僧統 澄儼의 상주에 의하여 왕명으로 김부식에 의해 찬술되었다. 김부식은 인종 14년(1136) 3월 檢校 太保守太尉 門下侍中 判尚書吏部事 監脩國史 上柱國 兼 太子太保에 보임되고, 인종 16년(1138) 8월에 判禮部事에 임명되므로 1125년 7월 이후에야 비문 찬술이 가능하며, 비의 건립 또한 1138년 무렵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⁵²⁾ 또한 자료②에 따르면 <僊鳳寺碑>는 인종 9년(1131) 국왕의 命으로 林存이 撰文한 것으로 약 6년이 경과한 인종 15년(1137)에야 건립되었다.

인종 즉위 초 澄儼은 五教都僧統에 임명되었는데 인멸된 <대각국사비>의 재수립을 시도하였다. 이는 의천계 화엄종의 재흥과 실추된 종세의 재정립과 관련이 있을 법하다. 당시 이러한 澄儼의 노력은 1125년 국왕의 명에 의해 김부식이 의천의 비문을 찬술하기에 이르렀지만, 이자겸의 천권은 그의 아들인 玄化寺 義莊과 불교계에서의 대립이 예견되었다.⁵³⁾ 이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록을 살펴보기로 한다.

50) 金富軾, 『開城靈通寺大覺國師碑』; 李智冠,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高麗篇 3』(伽山佛教文化研究院, 1996), 117쪽, “金紫光祿大夫檢校守太尉守司徒中書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 判尚書禮部事修國史上柱國臣金富軾奉宣撰”…“上嗣位之四年乙巳秋七月庚午 大覺國師門人都僧統澄儼等 具師之行事以聞曰 吾先師卽世久矣 而碑銘未著 常懼其德業有所磨滅而不記…授臣富軾以行狀曰 汝其銘之 臣讓不獲”

51) 林存, 『仁同僊鳳寺大覺國師碑』; 李智冠, 위의 책, 180쪽, “上御宇十年在大淵獻卅月七日詔臣存撰海東天台始祖大覺國師之碑銘”

52) 『高麗史』列傳 金富軾傳. 한편 『高麗史』仁宗 14년 3월에는 “檢校太保守太尉 門下侍中 判尚書吏部事”라고 하였다. 또한 인종16년 8월에는 김부식을 判禮部事로 임명하였다. 다시 12월에는 檢校太師 集賢殿大學士 太子太師로 임명하였다. 열전에는 判禮部事의 기록은 나오지 않는다.

- ① 병오년(인종4, 1126)에 귀신사로 물러나 거주하였다.…이때에 이르러 외척이 천권하여 왕실을 위태롭게 하려함을 알고, 초연히 세속을 벗어날 뜻으로 글을 올려 물러나기를 청하였다.…그 때 종실과 이름난 신하들이 서로 잇달아 배척되거나 축출되었으나, 국사는 홀로 태연하여 환란이 미쳐오지 않으니 당시 사람들이 그의 선견지명에 탄복하였다.…신해년(인종9, 1131)에 임금이 화란을 평정하고 국정을 회복하자, 증사를 보내어 서울로 불러 와 흥왕사에 머물게 한지 무릇 10여 년이었으며, 국사를 태속으로 존경하고 예우하였다.⁵⁴⁾
- ② 인종 초에 國戚 李氏가 천권하자, 그의 아들로 중이 된 자가 玄化寺에 있으면서 그 권세를 믿고 위세를 부렸다. 9) 老師와 有德의 승려를 겁박하여 문도로 삼았다. 그러므로 권세를 쫓는 자들이 매일 그의 문하에 가득하였다.…병오년(인종4, 1126)에 대궐 내에서 禍亂이 일어나자 이씨의 아들도 승도를 거느리고 바로 서울로 올라왔다.…그 해 여름 5월에 李黨이 패하자 왕이 그를 가상히 여겨 三重大師를 더하였으며, 大興寺로 옮겨 주지케 하고 首座를 더하였다.⁵⁵⁾

澄儼은 1125년을 전후하여 의천비 수립을 시도하였지만, 1126년에는 귀신사로 물러났다. 바로 위의 자료 ①과 같이 외척의 천권으로 왕실 뿐만 아니라 인종의 숙부인 화엄종의 澄儼 조차 위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불교계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던 듯하다. 위의 자료 ②에서 보듯이 이자겸의 아들로 현화사에서 승병을 주관하고, 이자겸의 난에 승병을 동원한 首座 義莊의 불교계에서의 위세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결국 澄儼은 이자겸과 법상종 玄化寺 義莊 등의 세력에 밀려 은거한 셈이고,⁵⁶⁾ 그들이 완전히 제거되고 인종이 초치하는 인종 9년(1131)에야 개경으로 돌아와 흥왕사에 주지할 수 있었다. 그 후 澄儼은 인종의 불교계 재편의지에 부응하여 화엄종을 중심으로 불교계를 주도하려 하였다. 그렇지

53) 『高麗史』列傳 李資謙에 “子僧義莊爲首座 王出乾德殿門外親傳詔書…義莊自玄化寺率僧三百餘人至宮城外 在宮內者 無敢出.”

54) 權適, 「興王寺圓明國師墓誌」, 『韓國金石全文: 中世上』, 631-633쪽. “丙午退居歸信…至是知外戚擅權欲危王室 超然有遁世之志 抗章乞退…其時宗室名臣相踵斥逐 而師獨泰然 不及於難 時人以此服其先知…辛亥上既平禍亂 乾斷萬幾 遣中使召還京師居興王寺凡十餘年 以師太叔之尊禮遇.”

55) 黃文通, 「圓證僧統德謙墓誌」, 『韓國金石全文: 中世上』, 694-698쪽. “仁王初 國戚李氏擅權 其子爲浮屠者 居玄化倚勢乘威 劫諸老師有德爲門弟 故趨炎炙手者日盈其門…會丙午禍起大內 李氏子率僧徒方趣京…是年夏五月李黨敗 仁王嘉之 加三重大師 移住大興寺 又加首座.”

56) 韓基汶, 「고려중기 흥왕사의 창건과 화엄종단」, 『高麗寺院의 構造와 機能』(민족사, 1998), 70~71쪽.

만 의천계 천태종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었다. 이는 <영통사비>와 <선봉사비>가 상호보충적인 성격을 지녀 일방을 폄하하거나 배제한 것이 아닌 점에서도 그렇다.⁵⁷⁾

이제 김부식과 임존의 정치적 입장 그리고 그들이 대각국사비문을 찬술하는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들이 활동하였던 인종초에는 권력이 외척인 이자겸에게 집중되면서 왕권의 제약이 되었고, 왕권강화에 동조하는 측근세력은 물론 관료정치를 추구하는 세력과 충돌하였다. 인종 4년(1126) 內侍 金安, 安甫麟 등의 근신들이 일부 무신들과 함께 이자겸 세력을 제거하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다. 이후 이자겸 세력을 제거한 金安 등의 측근관료, 妙淸, 鄭知常 등의 서경세력, 이들과 결탁관계에 있던 文公美, 林景淸 등이 정국을 주도하였다. 이후 정국은 주지하듯이 묘청의 난을 진압한 김부식을 중심으로 한 관료들에 의해 주도되었다.⁵⁸⁾

김부식은 1111년경 인멸된 것으로 추정되는 윤관 찬 <대각국사비문>을 대신하여 1125년 이후 어느 시기에 왕명으로 <영통사비>를 撰文하였다.⁵⁹⁾ 이렇듯 김부식이 국왕의 명에 의해 의천의 비문을 찬술한 배경은 무엇일까. 다음의 자료를 통하여 김부식과 의천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① 국사가 일찍이 신의 선형 승려 玄湛을 불러 놀기를 즐겼으니 그때의 친분이 백아와 종자기의 교분과 같았다. 신이 이로 말미암아 한번 뵈게 되었는데 그 얼굴빛이 청수하여 청천백일과 같았다…국사는 칭찬하기를 “湛師의 아우 또한 才士로다”라고 하였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국사가 입멸하였다. 아, 신비가 진정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는 설사 죽음도 할 수 있는 것이요, 비록 머리를 길게 펴서 밟고 가게 하더라도 또한 기꺼워하고 사모할 바가늘, 하물며 문자로써 비석아래 이름을 거는 일이야 어찌 영광과 다행이 되지 않으

57) 최연식, 「大覺國師碑의 建立過程에 대한 새로운 고찰」, 『한국사연구』, 제83호(1993), 52쪽; 朴鎔辰, 앞의 논문(2004), 252쪽.

58) 오영선, 「인종대 정치세력의 변동과 정책의 성격」, 『역사와현실』, 제9호(한국역사연구회, 1993), 78~83쪽; 채웅석, 「고려중기 사회변화와 정치동향」, 『한국사(5)』(한길사, 1994), 207쪽; 南仁國, 『高麗中期 政治勢力 研究』(신서원, 1999), 168쪽.

59) 최연식, 앞의 논문(1993), 38쪽; 김명인, 「金富軾과 尹彦頤」, 『전남사학』, 제9호(전남사학회, 1995), 39쪽; 김두진, 앞의 논문(2003), 146쪽; 김두진, 앞의 책(2006), 362쪽; 박용진, 앞의 논문(2004), 247쪽에서 1112년의 어느 시점으로 보았다.

리오.⁶⁰⁾

② 서호의 승 惠素는 내외전에 해박하고 시에 특히 재주가 뛰어났으며 필적 역시 절묘했다. 항상 대각국사를 스승으로 섬겨 고제가 되었다…언제나 國師가 계신 곳을 따라다니며 문장을 토론하였다. 국사가 돌아가시자 行錄 20권을 찬하였으며, 김시중이 이것을 취하여 비문을 작성하였다…시중이 致仕한뒤에 나귀를 타고 자주 찾아가서 날이 저물도록 道를 談論하였다.⁶¹⁾

김부식은 <영통사비>에서 家兄 승려 玄湛을 통하여 의천을 만난 일에 대하여 특기하였다. 의천과 玄湛은 期牙와 같은 교분이 있었다. 이러한 인연으로 의천을 만나 周易과 老莊의 大義를 문답하였음을 전하는 한편 비문을 찬술하게 되어 영광임을 서술하였다. 그가 <영통사비문> 찬술시 참고하였던 <행록10권>은 의천의 직계 화엄종 문도인 惠素가 찬한 것이었다. 惠素와 시문을 교류하고 수시로 道를 담론하였다는 위의 자료 ②는 김부식의 불교이해와 의천계 화엄종 문도와 긴밀히 연고되었음을 알려 준다.⁶²⁾ 이렇듯 김부식은 의천과의 연고, 의천계 화엄종 문도인 都僧統 澄嚴의 상주를 계기로 비문을 찬술하게 된 점, 불교에 대한 관심과 이해 등의 여러 요인으로 비문을 찬술하게 된 것이다.

林存이 <선봉사비>의 비문을 찬술할 당시 관직은 朝散大夫 翰林侍讀學士 左諫議大夫 尙書吏部侍郎 知制誥였다. 그는 知制誥였기 때문에 왕명에 따라 비문을 찬술하였겠지만 천대교학 등 불교적 이해가 있었을 법하다. 다만 그의 정치활동이나 불교계와의 관련성은 잘 찾아지지 않는다. 그러나 김부식과 같은 국왕권 강화의 입장으로,⁶³⁾ 윤언이 등의 청제건원이나 금국정벌문이 대두될 때 김부식과 같은 정

60) 金富軾, 『開城靈通寺大覺國師碑』, 李智冠, 앞의 책, 126쪽에 “召臣先兄釋玄湛與之遊甚歡 相知之分 齋期牙 臣 由是 得一謁 容色粹清 若觀青天白日 辱賜之坐語 自晝窮夜 說問易老莊一二大義 臣偶能言之 他日數稱之曰湛師弟亦才士也 居無何師入滅 噫士爲知己者用 假令死而可作 雖布髮而藉足 亦所欣慕焉 況以文字 卦名於碑石之下 豈不論榮幸也哉”

61) 李仁老, 『破閑集』 卷中, “西湖僧惠素 該內外典 尤工於詩 筆跡亦妙 常師事大覺國師爲高弟…常隨國師所在討論文章 國師歿 撰行錄十卷 金侍中撫取之以爲碑…侍中納政後 騎驢數相訪 竟夕談道…”

62) 家兄 玄湛의 존재, 말년에 觀蘭寺 원찰을 소유한 점, 설당거사로 자칭하고 惠素와 교류한 모습은 김부식의 불교이해가 깊었으며 만년에 불교에 심취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김부식은 『興王寺弘敎院華嚴會疏』(『동문선』 권110), 의천의 嫡嗣 戒膺이 있었던 각화사의 비와 澄嚴이 있었던 歸信寺의 비를 지었다(『樸翁稗說』 후집2).

63) 鄭求福은 김부식이 “왕의 지위는 神器라고 하여 신성시하고 있고, 신하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높

치적 입장에 있었음을 지적할 수 있다.⁶⁴⁾ 이렇듯 인종대 정치적인 상황과 불교계의 입장이 정리된 이후 의천의 兩碑가 建立될 수 있었다.

인종대 불교정책과 관련하여 大覺國師 의천이 강조되는 배경과 의천계 화엄종 및 천태종 등 불교계의 동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인종 즉위년(1122)에 법상종의 德緣과 선종의 學一이 각각 국사와 왕사로 임명되었으며,⁶⁵⁾ 화엄종의 澄儼이 불교계를 통괄하는 5教都僧統에 除授된 것은 인종이 그의 숙부인 澄儼에 대한 배려의 측면과 함께 불교계의 종파 안배를 의도한 것은 아닌가 한다.

學一은 예종 때 부흥한 선종계열로 왕사가 된지 6년만인 인종 7년(1129)에 하산하면서 왕사의 印과 狀을 반납하였지만 바로 돌려받은 것으로 보아 인종 22년(1144)까지 왕사직을 유지한 것으로 이해된다.⁶⁶⁾ 또한 국사인 德緣은 법상종 승려로 이미 예종 12년에 왕사가 되었고 인종 즉위년에 국사가 되었다. 이자겸의 천권시 그의 아들인 義莊과 함께 玄化寺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德緣의 활동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德緣의 법통을 계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圓證僧統 德謙이 義莊에게 동조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德謙과 동일한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1126년 이자겸의 난 이후 妙淸 계열이 등장하였다. 묘청은 음양비술로 표현되는 신비사상가였고 토착신앙과 관련된 均如계 화엄종 승려로 추정하는 견해가 있고 보면⁶⁷⁾ 의천계 화엄종 澄儼이 1131년 인종의 초치로 개경에 돌아오는 점이 주목된다. 이 시기는 묘청이 빈발하는 災異로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는 김부식 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비판받은 시기였다. 특히 묘청이 설행한 불교의례는 無能勝道

은 지위라는 생각은 있었다”라고 하여 국왕의 권위에 대한 인식을 지적하였다. 鄭求福, 「金富軾과 『三國史記』」, 『한국중세사학사(1)』(集文堂, 1999), 269쪽. 술츠는 『삼국사기』는 논찬 등에서 12세기 사건을 많이 인용하였는데, 인종 재위시의 사건들 자체에 직·간접으로 적용하여 역사적 교훈을 통하여 경고하였으며, 반역 사건을 들어 왕위의 존엄성은 손상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Edward, J. Shultz, 「김부식과 삼국사기」, 『韓國史研究』, 제73호(韓國史研究會, 1991), 14쪽. 이는 국왕권의 권위를 강조하는 모습으로 이해된다.

64) 林存은 이자겸이 한안인 세력을 제거할 때 시어사의 관직으로 유배되었고, 이듬해 돌아와 1132년에는 이부시랑이 되었다. 묘청의 난에도 김부식과 같은 정치적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65) 『高麗史』 世家 仁宗 즉위년 6월.

66) 朴胤珍, 「高麗時代 王師·國師 研究」, 고려대박사학위논문(2005), 45쪽.

67) 허홍식, 「화엄종의 계승과 소속사원」, 『高麗佛敎史研究』(일조각, 1986), 196~197쪽; 한기문, 「고려중기 흥왕사의 창건과 화엄종단」, 『고려사원의 구조와 기능』(민족사, 1998), 70~78쪽.

場, 唵吒波拘神道場 등이었다.⁶⁸⁾ 이는 천신의 힘으로 국토를 수호하고 중생을 수호한다는 밀교적 불교의례의 경향을 띠었다.⁶⁹⁾ 이 무렵 이와 대립되는 의천계 華嚴宗의 재흥에 대해서는 김부식의 『興王寺華嚴法會疏文』에서 살펴볼 수 있다.

大覺國師가 敎理를 선양하고 큰 이익을 지었습니다. 그 뒤 30년이 가깝도록 敎義는 점점 쇠퇴하여졌으나 능히 계승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공손히 유지를 이어 중흥하기를 생각하고, 大覺國師의 高弟 戒膺과 學徒 160인을 초청하여 弘敎院에서 이 달 某日부터 시작하여 약 37일 동안 華嚴法會를 열었습니다.…이제 은거하는 高弟들을 일시켜 講堂을 主管하게 하였습니다.…국가와 더불어 경사를 함께 하여 王業이 기울어지지 않게 하소서.⁷⁰⁾

의천 입적 후 30여 년간 敎義가 점점 쇠퇴하였지만 계승할 華嚴宗門의 高弟가 없었다. 김부식이 華嚴法會疏文을 작성한 시기는 인종 12년(1132) 무렵으로 숙종의 아들인 澄嚴이 개경으로 돌아오는 등 의천계 화엄종의 재흥이 주목된다. 澄嚴은 귀신사에 은거한지 6년만인 1131년에 인종의 초치에 의해 개경에 돌아와 흥왕사에 10여 년간 주지하였고 인종의 태숙으로 예우되었다.⁷¹⁾ 澄嚴은 은거하였던 의천의 嫡嗣 태백산 각화사 戒膺 등을 초치하는 한편 김부식의 華嚴法會疏文을 중심으로 국가 불교의례인 華嚴法會를 개설하였다. 또한 戒膺은 국왕의 초치에 따라 개경에서 華嚴經을 講經한 것으로 보아 이 시기에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추정된다.⁷²⁾ 의천계 화엄종의 불교의례의 경향은 華嚴敎學과 觀法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

68) 『高麗史』 世家 仁宗 8년 8월, 10월조에 “8월 임자일에 명령을 내려 弘慶院에는 唵吒波拘神道場을, 選軍廳에서는 般若經道場을 각각 14일 동안 베풀게 하였다. 이는 묘청의 말대로 시행한 것이었다. 겨울 10월 정축일에 無能勝道場을 選軍廳에 베풀어 21일 동안 계속하였다. 이는 묘청의 말대로 시행한 것 이었다”라고 하였다.

69) 金炯佑, 「高麗時代 國家的 佛敎行事에 대한 研究」, 동국대박사학위논문(1999), 146쪽.

70) 『동문선』(110) 「興王寺弘敎院華嚴會疏」, “大覺國師 宣揚敎理 作大利益 厥後近三十年 敎義浸衰 莫有能繼 弟子度尋遺志 思有以重興 請國師高弟弟子戒膺及學徒一百六十人 於弘敎院 始自今月某日起 約三七日修設華嚴法會…起高弟於嘉遯 俾主盟於講堂 四事莊嚴 多以益辦 六時禮念 勤而無疲…與國同慶 置神器於不傾.”

71) 權適, 「興王寺圓明國師墓誌」, 『韓國金石全文: 中世上』, 631~633쪽, “辛亥上既平禍亂 乾斷萬幾 遣中使召還京師 居興王寺凡十餘年 以師太叔之尊禮遇.”

72) 『高麗史』 世家 仁宗 12년 8월. “招山僧繼膺講華嚴經.”

로 화엄사상이 구체적으로 발현된 것이었다.⁷³⁾ 묘청과 정치적 입장을 달리한 김부식은 의천계 화엄종 문도와 긴밀히 연고되었던바, 바로 서경세력의 핵심인 묘청에 대한 견제책의 일환으로 의천계 화엄종을 주목하였을 법하다.

한편 1132년에 찬술한 임존의 <선봉사비문>에 大禪師 順善과 禪師 教雄, 流情이 의론하기를 ‘스승의 업적을 새긴 비문이 없음은 후세에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는 바가 되지 않겠는가’⁷⁴⁾라고 하여 <영통사비>의 존재를 몰랐던 것처럼 서술하였다. 즉, 1125년 12월 이후에 김부식이 왕명으로 찬술한 <영통사비>가 있었다면 그 존재를 알았을 것이나, 의천의 천태종 문도가 師僧인 의천의 비가 없어 허물이 될까 우려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영통사비>비문이 1125년 7월에 찬술되지 않았거나 찬술되었더라도 비가 건립되지 않아 그 존재를 알 수 없었음을 의미한다. 즉 <영통사비>의 건립주체였던 澄儼의 상주에 의해 1125년 7월 왕명으로 찬하려 하였으나 이자겸의 난 등으로 정치상황은 급전하여 비문을 찬술할 수 없었고, 또한 澄儼이 귀신사로 은거함에 따라 더 이상 건립 추진이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澄儼이 개경으로 돌아온 1131년 이후에도 비의 건립은 쉽지 않았고 묘청의 난이 완결된 이후 1138년경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된다.

澄儼은 지방에 은거하였던 천태종의 教雄을 추천하여 1115년에 개경으로 복귀시켰다. 이보다 앞서 의천이 天台宗을 開創한 것은 불교계의 재편을 의도한 것이었다. 이때 천태종은 여러 山門이나 宗派의 學徒로 구성되었는데, 그 가운데 德麟·翼宗·景蘭·連妙 등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곧 바로 의천의 문하에 들어갔다.⁷⁵⁾ 이들 가운데 翼宗의 문하가 教雄, 順善 등으로 이어지면서 가장 번창하였고, 결국 이들에 의해 僊鳳寺碑가 건립되었다.⁷⁶⁾ 천태종의 教雄은 仁宗이 즉위하자 外帝釋院

73) 朴鎔辰, 「고려중기 義天의 佛教儀禮와 그 認識」, 『한국중세사연구』, 제22호(한국중세사학회, 2007), 147~173쪽.

74) 林存, 「仁同僊鳳寺大覺國師碑」, 李智冠, 앞의 책, 185쪽. “大禪師順善禪師教雄流情 皆師之法孫 相謂曰我之宗門 此土未行 遇師首唱而力創 如達摩大士爲震旦禪那始祖 今未有碑記 其事後世其有所歸咎哉”

75) 林存, 「仁同僊鳳寺 大覺國師碑」, 『조선금석총람』 권상, 333쪽. “於是 募可與弘道者 德麟翼宗景蘭連妙 各率其徒 齒於弟子.”

76) 僊鳳寺碑銘은 德麟이 1132년 이후 삼중대사로서 天壽寺 義學, 月南寺 住持의 승직을 띠고 碑文과 篆額을 썼다. 그러나 僊鳳寺碑 수립 말의는 순선, 教雄, 유정이었는데 유정은 바로 연묘의 문도였다. 주목되는 점은 碑銘과 碑陰의 제작 시기는 서로 달라 碑銘 부분은 1132~1135년 사이에

으로 옮겼고, 인종 13년(1135)에는 국청사로 옮겨 주석하였으며 大禪師가 되었다. 즉 교응은 인종 13년 대선사에 제수되면서 불교계에서의 천태종의 역할을 확대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⁷⁷⁾ 또한 의천의 화엄종 문도와 천태종 문도가 교류한 모습도 나타나는데, 결국 그들의 師僧인 의천에 대해 상호보완적인 兩碑를 건립한 것으로 이해된다.⁷⁸⁾ <선봉사비> 또한 1132년 12월에 찬술되어 1137년에 건립된 것은 묘청의 난과 관련이 있을 법하다.

대각국사 의천의 <영통사비>는 인종의 불교계 재편의지에 부응하여 왕권강화를 목적으로 의천계 화엄종 문도와 연고된 김부식에 의해 찬술되었다. 또한 임존이 찬술한 천태종의 <선봉사비>도 화엄종의 <영통사비>와 종파적 대립이나 폄하가 없으며, 임존 역시 김부식과 같은 정치적 입장에 있었다. 이렇듯 인종대 정치적인 입장과 불교계의 입장이 정리된 이후 대각국사 의천의 兩碑가 건립될 수 있었고, 비문을 대각국사문집에 收錄하여 그들의 입장에 맞는 문집이 나오게 된 것이다. 결국 인종의 불교계 재편 의도에 짝하여 의천계 화엄종의 정통성 강조와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대각국사비를 수립하고 문집을 편찬하는 일련의 불교계 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이해된다.

IV. 맺음말

본고에서는 문집의 形態 書誌를 간략히 정리하고 문집과 외집의 구성과 缺落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또한 문집의 편찬배경과 그 의미에 대하여는 대각국사비의 건립과정을 추적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정치계와 불교계의 동향을 함께 살펴 보았다. 이상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결론을 제시한다.

쓰였고 碑陰記는 教雄이 대선사가 된 해인 1135년 이후에 쓰였다.

77) 『國淸寺妙應大禪師教雄墓誌』, 『韓國金石全文: 中世上』, 634~636쪽. “上卽位賜紫纁貼袈裟一領仍轉月峰寺又轉外帝釋院至乙卯歲轉住國淸寺仍授大禪師賜滿纁袈裟一領並官誥一道.”

78) 澄儼이 1131년부터 개경 흥왕사에 주지하였고, 教雄은 1135년 국청사로 옮겨 大禪師가 되었다. 이로보아 인종 대 화엄종과 천태종의 중심사원은 의천계 문도에 의해 주관되었을 법하다. 또한 의천계 화엄종과 천태종 문도의 교류 근거는 澄儼이 천태종의 教雄을 추천하여 개경에 복귀시킨 점, 教雄이 해인사에서 유가서 4천권을 구한 점 등을 근거로 들 수 있다.

현전 문집의 판본 가운데 체제를 갖춘 것은 문집 20권, 외집 13권의 별책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문집은 3종의 異板이 있었으며 현재 2종의 板本이 남아있다. 현행본은 의천의 문인인 重大師 慧觀이 편찬에 관여하면서 板下本을 淨書하였는데, 慧觀이 淨書한 문집 20권과 외집 13권 별책 판본과 慧觀이 書한 문집과 외집 23권 합집의 판본이 있다.

문집의 편찬은 의천계 화엄종 문도에 의해 주관되었으며, 화엄종 문도가 행록을 갖추어 상주하고 왕명을 받아 간행하였다. 法性寺 주지 慧觀은 기존의 문집을 의천계 화엄종 문도의 편찬 방침에 따라 文種을 분류하고, 板下本을 淨書하였다. 慧觀은 인종 7년(1129) 가야산 신흥사 주지를 마치고 법성사에서 주지할 때 淨書한 것으로 인종 16년(1138)을 전후하여 편찬하였을 것이다.

문집은 매권마다 연대순으로 편집되었으며 의천의 저술은 내집에 수록하였고, 직접 저술하지 않은 것은 외집에 실었다. 문집을 분리 편찬한 것은 편찬 기준을 달리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후대에 의천의 업적 선양과 관련이 있다. 의천의 碑는 화엄종과 천태종 문도에 의해 인종 대에 각각 建立되었으며, 문집 편찬자는 그 碑文을 외집에 수록하여 현행 문집의 체제를 완성한 것이다. 이는 의천의 불법 교류 업적을 분명히 제시하는 한편 국제적으로 존송된 인물이었음을 강조하기 위한 편찬방법이었다. 더 나아가 의천의 국제적 위치에 의탁하여 화엄종의 권위 제고, 정통성 확보 등도 추측된다.

또한 문집에는 많은 缺落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종파별 缺落은 화엄종 결락 12수, 법상종 4수, 천태종 관련 2수, 선종 관련 3수이다. 화엄종 관련 文類의 缺落이 가장 많다. 또한 詩文의 결락 가운데에도 다수의 화엄종 사원 관련 詩題가 보인다. 또한 화엄종 문도의 입장에서 편찬하였기 때문에 다른 종파인 天台나 禪宗 관련 문류의 수록은 사실상 어려웠다.

화엄종의 <영통사비>는 김부식에 의해 1125년 7월 이후에야 비문 찬술이 가능하였으며, 비의 건립 또한 1138년 무렵에 이루어졌다. 천태종의 <儂鳳寺碑>는 인종 9년(1131) 국왕의 命으로 林存이 撰文한 것으로 약 6년이 경과한 인종 15년(1137)에야 건립되었다. <대각국사비>가 건립된 인종 16년(1138) 경의 정국은 묘청의 난을 진압한 김부식을 중심으로 한 관료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김부식과 임존은 친왕적 입장으로, 윤언이 등의 칭제건원이나 금국정벌론이 대두될 때 그들

은 같은 정치적 입장에 있었다. 김부식은 의천과의 연고, 화엄종 의천계 문도인 도승통 澄儼과의 관계, 佛敎敎學에 대한 깊은 이해, 인종의 화엄종을 통한 불교계 재편 의지 등에 의해 <영통사비문>을 찬술하였다. 또한 林存은 知制誥로서 왕명에 따라 비문을 찬술하였으며 천태교학 등 불교적 이해가 있었다.

인종대 불교정책과 관련하여 大覺國師 의천이 강조되는 배경과 의천계 화엄종 및 천태종 등 불교계의 동향을 살펴보면, 법상종의 德緣과 선종의 學一이 각각 국사와 왕사로 임명되었으며, 화엄종의 澄儼이 불교계를 통할하는 5敎都僧統에 除授된 것은 인종이 그의 숙부인 澄儼에 대한 배려의 측면과 함께 불교계의 종파 안배를 의도한 것이었다. 한편 1126년 이자겸의 난 이후 妙淸 계열이 등장하였다. 묘청은 음양 비술로 표현되는 신비사상가였고 밀교적 불교의례를 주관한 점은 의천계 화엄종 澄儼 등과는 사상경향을 달리한 것이었다. 이 시기는 김부식이 정치적으로 묘청을 비판하는 한편 의천계 화엄종과 교류를 확대한 시기로 서경세력의 핵심인 묘청에 대한 견제책의 일환으로 의천계 화엄종을 주목하였을 법하다.

인종의 즉위와 함께 五敎都僧統이된 圓明國師 澄儼은 의천계 화엄종을 강조하는 <영통사비>의 건립을 의도하였지만, 문벌귀족 인주이씨 李資謙과 그의 아들인 법상종 玄化寺 義莊 등 불교계와 연고된 정치세력에 의해 좌절되었다. 澄儼은 이들이 제거된 1126년 이후 1131년에 개경으로 돌아와 흥왕사에 주지하면서 인종의 불교계 재편을 통한 왕권강화 의도에 부응하여 1138년경 <영통사비>를 건립하였다.

澄儼에 의하여 주도된 <영통사비>의 수립은 의천이 천태종 개창시 문하로 바로 들어온 천태종 문도와 상호 교류하는 가운데 건립되었다. 이들 천태종 문도는 화엄종의 澄儼과 정치적 부침을 함께하는 것으로 보아, 의천계 화엄종과 대립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친연하고 華嚴敎觀과 天台敎觀 등 사상적 유대를 함께 한 것으로 이해된다. 바로 이러한 연유로 인종 16년(1138)을 전후하여 천태종의 <僊鳳寺碑>와 화엄종의 <靈通寺碑>가 비슷한 시기에 건립되었으며, 『大覺國師外集』에 수록되어 현행하게 된 것이다.

결국 인종대 정치적인 입장과 불교계의 입장이 정리된 이후 대각국사 의천의 2碑가 건립될 수 있었고, 이러한 의천의 비를 대각국사문집에 收錄하여 그들의 입장에 맞는 문집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인종의 불교계 재편 의도에 짝하여 의천계 화엄종 문도는 그들의 정통성 강조와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대각국사비를 수립하

고 문집을 편찬하는 일련의 불교계 활동을 전개하였다.

참고문헌

- 김두진, 『고려전기 교종과 선종의 교섭사상사 연구』. 서울: 일조각, 2006.
- 金杜珍, 「義天의 圓頓사상과 그 불교사적 의미」. 『北岳史論』 제10집, 北岳史學會, 2003, 129~176쪽.
- 金炳仁, 「金富軾과 尹彥頤」. 『全南史學』 9, 全南史學會, 1995, 35~82쪽.
- 김상현, 「대각국사 의천 관계 참고문헌」. 『天台學研究』 제4집, 2003, 240~249쪽.
- 金炯佑, 「高麗時代 國家의 佛敎行事에 대한 研究」. 동국대박사학위논문, 1999, 134~147쪽.
- 南仁國, 『高麗中期 政治勢力 研究』. 신서원, 1999, 161~182쪽.
- 朴鎔辰, 「의천의 『圓宗文類』 編纂과 그 의의」. 『史學研究』 제82호, 韓國史學會, 2006, 1~42쪽.
- 朴鎔辰, 「고려중기 義天의 佛敎儀禮와 그 認識」. 『한국중세사연구』 제22호, 한국중세사학회, 2007, 147~173쪽.
- 朴胤珍, 「高麗時代 王師·國師 研究」. 고려대박사학위논문, 2005.
- 朴在鎬, 「義天의 佛敎詩」. 『韓國禪詩研究』. 서울: 국학자료원, 1998, 39~51쪽.
- 오영선, 「인종대 정치세력의 변동과 정책의 성격」. 『역사와현실』 9, 한국역사연구회, 1993, 68~98쪽.
- 尹容鎭, 「法水寺址의 高麗懸板」. 『韓國文化의 諸問題』. 서울: 시사영어사, 1982, 47~58쪽.
- 崔柄憲, 「大覺國師 義天의 渡宋活動과 高麗 宋의 佛敎交流: 晋水淨源과 慧因寺와의 關係를 중심으로」. 『震檀學報』 71·72, 震檀學會, 1991, 359~372쪽.
- 鄭求福, 「金富軾과 『三國史記』」. 『한국중세사학사(1)』. 서울: 集文堂, 1999, 227~277쪽.
- 趙明基, 『高麗 大覺國師와 天台思想』. 서울: 東國文化社, 1964, 142~164쪽.
- 채웅석, 「고려중기 사회변화와 정치동향」. 『한국사(5)』. 서울: 한길사, 1994, 179~220쪽.
- 최연식, 「大覺國師碑의 建立過程에 대한 새로운 考察」. 『韓國史研究』 83, 1993, 37~55쪽.
- 韓基汶, 『高麗寺院의 構造와 機能』. 서울: 民族社, 1998, 70~78쪽.
- 許興植, 「의천의 思想과 試鍊」. 『정신문화연구』 54, 1994, 49~66쪽.
- 허흥식, 『高麗佛敎史研究』. 서울: 一潮閣, 1986.
- 河村道器, 「大覺國師集의 異版について」. 『靑丘學叢』 4, 1931, 141~148쪽.
- Edward, J. Shultz, 「김부식과 삼국사기」. 『韓國史研究』 73, 韓國史研究會, 1991, 1~20쪽.

국 문 요약

『대각국사문집』은 해관을 비롯한 의천계 화엄종 문도가 편찬을 주관하였다. 현전 문집의 판본 가운데 체제를 갖춘 것은 문집 20권, 외집 13권의 별책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3종의 異板이 있었으며 현재 2종의 板本이 남아있다.

고려중기 인종대에는 김부식이 정치적으로 묘청을 비판하는 한편 의천계 화엄종의 인물과 교류를 확대한 시기로 서경세력의 핵심인 묘청에 대한 견제책의 일환으로 의천계 화엄종을 주목하였을 법하다.

인종대 정치적인 입장과 불교계의 입장이 정리된 이후, 인종의 지원하에 澄儼의 주도로 1138년을 전후하여 김부식이 찬문한 <영통사비>와 임존이 찬문한 <儼鳳寺碑>가 건립되었다. 이러한 의천의 비문을 대각국사문집에 收錄하여 의천계 화엄종 문도의 입장에 맞는 문집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인종의 불교계 재편 의도에 짝하여 의천계 화엄종 문도는 그들의 정통성 강조와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대각국사비를 수립하고 문집을 편찬하는 일련의 불교계 활동을 전개하였다.

● 투고일 : 2007. 4. 11.

● 심사완료일 : 2007. 5. 29.

● 주제어(keyword) : 의천(Ui-chon), 대각국사문집(『*Taegak kuksa-Munjip*』), 영통사비(Youngtong-sa temple monument), 선봉사비(Seonbong-sa temple monument), 징엄(Jing-em), 김부식(Kim, bu-shik), 임존(Lim-jon), 인종(In-jong).